

# 전두환 장례 가족장으로 치른다

### 행안부, 국장·국민장 통합 '국가장' 도입 후 첫 제외 사례 쿠데타 사과 없는 죽음...과거사 반성없고 추징금 '버티기'

정부가 23일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국가장' (國家葬)을 치르지 않기로 했다. 2011년 국장과 국민장을 통합해 국가장이 도입된 이후 사망한 전직 대통령 중 국가장을 치르지 않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승만·윤보선 전 대통령을 제외하면 정부가 장례를 지원하지 않은 세번째 전직 대통령이 된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전 전 대통령에 대해) 국가장을 치르지 않기로 했다"며 "국가장을 하지 않기로 한 만큼 유족들이 가족장으로 치르더라도 정부 차원의 지원은 없다"고 밝혔다. 유족 측인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도 이날 기자들에게 "가족장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장법에 따라 정부는 국가장을 추진할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정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게 되지만, 행안부는 이런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 정부의 이런 결정은 비

슷한 역사적 격격을 살다 지난달 별세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른 것과 대조적이다. 정부는 전 씨의 경우 과오에 대해 나름의 반성의 뜻을 표한 노 전 대통령과 다른 행보를 보여준 것을 고려해 국가장을 치르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장법은 2조에서 전·현직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이 사망시 국가장을 치르도록 하고 있다. 중대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법의 목적을 담은 1조는 "이 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逝去)한 경우"라는 표현을 썼다. '국가·사회에 현저한 공훈'이 있거나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을 국가장의 대상자로 적시하고 있는 것이다.

전 씨는 노 전 대통령과 함께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이라는 큰 역사적 과오를 짊어지고 있지만, 노 전 대통령과 달리

사과 표명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적반하장적의 발언으로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정권 찬탈을 위한 '12·12 군사반란'을 획책했고,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을 유혈진압한 뒤 대통령을 지냈다. 퇴임 후 내란과 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1997년 12월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이후 2003년 방송 인터뷰를 통해 "광주는 충기를 들고 일어난 하나의 폭동"이라고 발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선고받은 추징금 2천205억원을 완납하지 않았다.

그동안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이승만·윤보선 전 대통령의 장례만 가족장으로 치러졌다. 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장으로, 최규하·노무현 전 대통령 등의 장례는 국민장으로 치러졌다. 국장과 국민장이 국가장으로 통합한 뒤에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가장으로 치러진 첫 사례였다.

정부는 지난달 노 전 대통령 사망 때는 고심 끝에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는 예우를 하기로 하면서 비판 여론을 고려해 정부 차원의 분향소를 차리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조기 계양을 독려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두환(오른쪽)·노태우 전 대통령이 1996년 8월 26일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 '대통령' 아닌 민주주의 깃발은 '정치군인'

### 육사 동기 등과 '하나회' 결성...12·12, 5·18로 권력 장악 퇴임 후 끝없는 추락... '광주의 진실' 끝내 안팎하고 떠나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역사에 씻을 수 없는 과오와 상처를 남기고 생을 마감했다. 그는 "시대적 상황이 나를 역사의 전면에 끌어냈다"(2017년 회고록)고 주장했지만, 현대사에서 '대통령 전두환'이 아닌 민주주의의 깃발은 정치군인을 지칭하는 말이 됐다.

◇ 육사 졸업 후 정치군인의 길로...12·12 쿠데타, 5·17 조치로 정권 찬탈=그는 1931년 1월 18일 경남 합천군 율곡면 내천리에서 태어났다. 가난한 집안에서 성장한 그는 대구공고를 졸업한 뒤 1951년 육사(11기)에 들어가면서 엘리트 군인 코스를 밟았다.

영남 출신 육사 동기와 후배를 중심으로 군내 사조직인 '하나회' 결성을 주도한 그는 1976년 대통령경호실 차장보로 박정희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권력 중심에 바짝 다가서게 된다. 1979년 3월 보안사령관에 오른 그는 그해 10월 26일 박 대통령을 김계구 중앙정보부장의 흉탄에 서거하자 권력 야욕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10·26 사태 합동수사본부장이 된 그는 각종 율권행위로 군내 비판이 일면서 교체 위기에 몰리자 하나회 장교들과 군사반란을 도모했다.

그는 당시 최규하 대통령의 재가도 받지 않은 채 내란 방조 혐의로 정승화 제1사령관을 강제 연행하고 전방 육군 병력을 서울로 출동시켜 군 지휘체계를 무너트리는 하극상을 저질렀다. 군의 실권을 장악한 뒤 하나회 출신으로 군부를 재편한 그는 이듬해인 1980년 5월 17일 최규하 대통령을 겁박해

비상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김영삼·김대중·김종필 등 3김(金)을 정치규제로 묶고 권력을 일거에 장악했다.

5·17 조치 다음날 광주 시민들은 '민주주의 복원'을 외치며 거리에 몰려나와 저항했으나 신군부는 공수부대를 투입, 유혈 진압을 감행하며 현대사 최대의 비극을 낳았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깃발은 전씨는 1980년 6월 초헌법적 기구인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시킨 데 이어 국회를 해산시킴으로써 대통령 권좌를 확보했다.

같은 해 8월 대장 계급으로 군복을 벗고 정치인의 길로 들어섰다. 5공 독재 정권의 서막이었다. 80년 8월 16일 최규하 대통령을 하야시킨 뒤 그해 유신헌법에서 만든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 7년 독재 후 육사 동기생에 정권 이양=5공 헌법을 만들고 1981년 제12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비리·부패·정쟁의 일소를 부르짖었다. 정권의 구호는 '정의사회 구현'이었지만 나라 전체는 정반대로 흘러갔다. 독재 정권을 무너트린 건 민주화를 염원하는 국민이었다. 1987년 1월 서울 서빙고 대공분실에 연행된 서울대생 박종철의 고문 치사 사건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말로 덮으려 한 경찰의 발표는 6월 항쟁이라는 국민적 저항을 불렀다. 전씨는 4·13 호헌조치로 5공 연장을 획책했지만 국민들의 민주화 시위에 굴복, 권력의 정점에서 떨어지게 된다.

전씨는 직선제 개헌을 수용한 6·29 선언으로 여

론이 민정당 노태우 후보에게 유리하게 조성된 상황에서 김영삼, 김대중 양김의 분열에 힘입어 6공 화국을 만드는 데 성공했지만, 행운은 오래가지 못했다.

1988년 11월 재임 기간 과오와 비리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정치자금 139억원과 개인재산 23억원 등 재산을 헌납한 뒤 이순자씨와 함께 강원도 백담사 유배 길에 올랐다. 백담사로 향한 11월 23일은 공교롭게도 전씨가 숨진 날이기도 하다. 백담사 유배 중 1989년 12월 31일 야권의 요구에 국회 광주특위와 5공특위 합동회의에 출석, 증언대에 서는 수모를 겪었다. 당시 국회의원이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회 청문회에서 그에게 명패를 집어 던진 장면은 5공 청산 역사의 한 페이지에 남았다.

1990년 12월 백담사에서 연희동 자택으로 돌아왔지만 그를 기다리던 것은 역사의 단죄였다. 문민정부를 연 김영삼 전 대통령의 하나회 해체와 12·12, 5·18 진상규명 및 관련자 처벌 등 과거사 청산 조치에 따라 심판대에 오르게 된 것이다.

1995년 12월 내란죄 혐의로 검찰의 출두 통보를 받은 전씨는 연희동 자택 앞에서 협조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골목길 성명'을 발표하고 고항합천으로 내려가 또 한번 국민의 공분을 자아냈다. 곧바로 사전구속영장이 집행돼 고향 땅에서 압송된 그는 한겨울 4평 남짓한 차디찬 교도소 독방으로 '가차'를 옮겨야 했다. 그는 국민회의 김대중 후보가 승리한 1997년 12월 대선 직후 김영삼 대통령의 특별사면 조치로 구속 2년 만에 풀려났지만 이후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진정성 있는 반성을 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 '실과 바늘' 노태우 별세 28일 만에 세상 떠나

### 육사 동기 '최고통치자-2인자' 관계... '5공 청산' 계기 앙금

제11·12대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사망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별세한지 불과 28일 만이다. 60여년에 걸쳐 평생 때려야 할 수 없는 길고도 질긴 인연을 맺었던 두 전직 대통령이 불과 한 달이 채 안 되는 간격으로 유명을 달리한 것이다. 지난달 26일 노 전 대통령의 부고를 들은 전 전 대통령은 침묵 속에 눈물을 흘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건강 문제로 빈소를 찾아 조문하지 못했다, 부인 이교자 여사가 대신 조문했다.

두 사람의 인연은 이교자 시작된다. 전 전 대통령은 경남 함천에서 태어나 부모님을 따라 대구에 정착해 같은 해 대구공고를 졸업했다. 한 살 어린 노 전 대통령은 대구공고의 전신인 대구공업중을 거쳐 1951년 경북고를 졸업했다. 두 사람은 이듬해인 1952년 육사 제11기(정규 육사 17기) 동기생으로 다시 만난다. 생도 시절 전씨는 축구부에서, 노 전 대통령은 럭비부에서 활동했다.

전씨는 노 전 대통령이 1959년 김옥숙 여사와 결혼할 때 사회를 바꿀 정도로 노 전 대통령과 돈독한 사이였다. 전 전 대통령은 육군참모총장 수석부관, 대통령경호실 작전차장보, 보안사령관 등을 지냈고, 이 자리를 노 전 대통령이 이어받았다.

전씨는 취임 후 노 전 대통령에게 군을 떠나 전두환 정권에 합류할 것을 권고했고, 노 전 대통령

이 이를 따랐다. 이후 전씨는 노 전 대통령을 무한 신임하며 그를 13대 대통령으로 사실상 이끌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의 취임 이후 '5공 청산'이라는 거센 바람이 불면서 단독하던 둘의 관계에 균열이 생겼다. 전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요구가 빚발치자 노 전 대통령은 민심이 가라앉을 때까지 조용한 곳에 가 있으라고 권고했고, 전씨 측이 백담사를 택했다.

두 사람의 12·12 쿠데타와 비자금 사건 등으로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인 1995년 11월 16일과 같은 해 12월 3일 나란히 구속돼 역사의 심판을 받았다.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전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을, 노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의 중형을 각각 선고받은 뒤 같은 해 12월 당시 임기 말이던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의 정치적 합의에 따라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둘이 마지막으로 만난 건 2014년 8월 13일이였다. 전씨는 갑자기 노 전 대통령의 자택을 방문해 김옥숙 여사에게 "노 전 대통령을 좀 만나러 왔다"고 했다. 전씨는 병상에 누워있는 노 전 대통령에게 "이 사람아. 나를 알아보시겠는가"라고 했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노 전 대통령은 김 여사가 "알아보시려는 거 같아"고 하자 눈을 깜빡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임야 삽니다**  
지분환영  
맹지사절. 010-6837-4700

**5억 이상 투자**  
경기, 수도권  
하실 분. 010-3605-5000

## 매각 공고

1. 입찰내용: 빌파임 매각
2. 매각물건의 표시  
가. 적지 위치: 전남 영암군 학산면 일원 (보청-임성리(공공) 현장)  
나. 매각예정수량: 30,000㎡(자연상태)
3. 입찰방법: 입찰 매각 입찰
4. 현장설명: 생략(문의 061-463-6630)
5. 입찰일 및 장소  
가. 입찰등록 마감일: 2021년 11월 26일(목) 10:00  
나. 개찰일 및 장소: 2021년 11월 26일(목) 10:30, 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 (주소: 전남 영암군 서면로 청룡리 605-1번지)
6. 입찰참가자격  
가.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견적서를 시한 내에 제출한 자  
나. 국제정수법 제66조(배수인의 제한) 및 동법 제72조(공매참가의 제한) 규정에 의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다. 기 입찰과 관련된 협약 위반업체 제외  
라. 동 사업구간 낙찰금액 확인 및 동등 이상 제세금에 대해 입찰 참가 하유  
마. 입찰일 현재 당 현장 내에서 운반전행 중인 인체는 제외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차수별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발파양 매각금액 등 경제성 및 계약이행능력을 검토하여 낙찰자 차수별 1인 선정  
나. 계약이행능력은 최종 낙찰자 선정 전 사전검토(반출계획, 반출위치, 반출방법)를 통과해야 함.  
다. 경제성 검토결과 동일한 입찰자가 차수별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해 결정함  
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낙찰되거나, 낙찰자가 기한 내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시, 기한 이내에 인허가를 득하지 못한 경우, 계약조건 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후순위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함.
8. 기타 특약사항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이행시 계약해지와 손해배상을 해야 함.  
나. 본 입찰 참가자는 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견적서와 같이 제출해야 하며, 입찰공고조건 및 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반출 전 낙찰금액 선납 후 반출하여야 함.  
라. 운반, 인건, 환경, 민원관리 관련 인허가 비용은 수요자 부담으로 견적하여야 함.  
마. 운반관련 차량은 반드시 세류기 세척 후 출차하여야 함.  
바. 적지 후 반출 요구 시 즉시 반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 입찰에 참여 시 불순물 처리비용을 포함한다.  
아. 1일 빌파임 600㎡ 이상 반출하여야 함.  
자. 입찰 당일 시(1일 빌파임 800㎡ 미만) 자동차로 계약해지고 선납한 매각대금은 반환하지 않음.  
차. 유자 매각대상수량은 발주처 및 현장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 기타 발파양 반출에 관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반출 후 배수인의 불법적저, 목적 외 사용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해야 함.  
(이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청구, 행정기관 등에 접수된 민원, 언론보도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배수인에게 있음)  
• 보청-임성리 제6공구 건설사업관리단 (☎ 070-4458-2953)  
• 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 담당자 (☎ 062-602-5332)

2021년 11월 24일

## 부동산 성공 투자 전략 무료 대 특강

99% 적중률... 누구에게나 속사·원한 부동산 실전 투자 방향제시!!

장소	3층 길부동산맨토스쿨(힐스테이트 3단지 앞)
일시	2021.11.25(목), 27(토) 오후2시/ 7시
문의전화	010-5632-5209(사전예약)

※세미나 참석하신분은 1:1투자 상담시 상담료 무료

### 강/의/내/용

- 1강의 광주 부동산 시장 전망과 투자 방향
  - 꼭 알아야 할 광주 중요지역 분석
  - 3천만원으로 투자될 수 있는 아파트 갭투자
  - 수익형 부동산의 과학적 투자 가치 분석 기법
- 2강의 "황금 개발지 토지" 성공 투자법 대공개
  - 광주/전남 지역 내의 "최고 가치" 매물 대 공개
  - 농지법 개정에 따른 필승 농지 투자법 대 공개
  - 소액 토지 투자로 부자 되는 방법 공개
  - 전국 지역 예타면제사유 토지 집중분석

김영표 부동산 실전투자 전문가

MTN/나우데이-김성민의 비즈침공소 (2017년 우수기업 선정 방송)  
(2017년 스포츠서울 혁신 기업 선정 방송)  
(한) 길부동산맨토스쿨 대표  
(한) 길부동산연구소 대표  
(한) L&A비즈니스  
(한) 각종 언론사 및 대학교 초빙 특강 강사  
(한) 전국 순회 부동산 세미나 300회 이상 강연  
(한) 롯데백화점 및 각종 백화점 문화행사 특강 강연  
뉴스캐피탈 인터넷신문 발행, 개제중

## 전원주택 개발부지

담양읍, 다가구, 사옥 등 다양도 부지, 임야, 매매

1. 전원주택 개발부지 건물 후면 선산 명지  
담양, 금성, 덕성리 덕진산 아래 광주간 20분 4차선 산설도로 근접  
• 2층 건물 철근 콘크리트조 적벽돌외벽 스톤라프 129㎡(39평)  
• 토지 8,098㎡(2,452평) 50여년생 명품소나무 8주와 정원수 및 과수 380여주 포함  
• 경관 수려한 숲속 전원주택 10여채 조성 가능  
• 2층 기존 건물 후면 선산 명지 조성 가능 매 7억원
2. 전원주택용 부지와 사채전 조정수 20여년생 8중 1천5백주 포함  
• 순창, 금곡, 방축리 담양 경계 산설 4차선 I.C 근접  
광주간 20분 계획관리지역 전 9,190㎡(2,780평)  
• 느티나무, 소나무 등 20여년생 외 7중 1천5백여주 조경수 포함  
• 전원주택단지, 유치장, 펜션, 가든, 커피숍 다목적 사용부지  
구내포장 배수로 시설 남향에 아미산 바라본 경관수려 ㎡ 9만원
3. 다가구, 고급주택, 사옥 등 다양도 부지(주거 2중)  
• 담양읍 양각리 강변 유희마을 조성지 근접  
광주간 15분 공공주차장 3면도로접 남향 교통요지 시장인접  
다가구 사옥 다양도 부지 4,220㎡(1,276평) 매 6억5천원
4. 임야내 휴양림 30여년생 편백 1만여주 식재 마을 변방  
(1) 영암읍 학송리 계획관리지역, 취락마을을 용지 포함. 현 국도 4차선 근접 2023년 고속도로 완공시 톨게이트 300m 지점  
광주간 25분 소요, 임야 76,000㎡(22,990평) 구내운달샘  
전원주택지 10여-귀촌·휴양자 적합 매 ㎡ 6천원  
(2) 담양, 월산면 중월리 광주간 25분 임야 62,810㎡(19,000평)  
농림지역 농로접 적응수자생 생약재배 캠핑장, 휴양지  
농가주택 가능 매 ㎡ 5천원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561-5(삼성호플러스빌) 건너편 동광주빌딩

대영공인중개사 대표 김영주 010-3454-2389

### 해남 군관리계획(주차장, 도로) 결정(변경)인 주민 열람 공고

해남군 해남읍 해리 657-66번지 및 해남읍 상내리 23-4번지 일원에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해남군관리계획(주차장, 도로)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의 청문회)의 의결(청문)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결청문의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주민과 이해 관계자께서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11.16.  
해남 군수

1. 해남군관리계획(주차장, 도로)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도	면적(㎡)	기정	기정	중정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소 결정일	비고
신설	소로 2-나	A	8~10	국지도로	72	중로3-4호선 657-66번지 주차장A	일반도로	-	해남

■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	소로 2-나	도로 신설 - L=72m, B=9-10m	주차장A의 진입을 위한 국계획도로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로명	사실명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 후	최소 결정일	비고	
신설	A	해리	해남읍 해리	657-66번지	-	-	총 897	897	-	해남
		공영주차장	공영주차장							
신설	B	상내리	해남읍 상내리	23-4번지 일원	-	-	총 3,459	3,459	-	해남
		공영주차장	공영주차장							

■ 주차장 변경사유서

도로명	사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A	해리 공영주차장	• 주차장 신설 - 위치: 해남읍 해리 657-66번지 - 면적: 897㎡	• 부분별한 불합수정차로 인한 상가 주변 및 주택가 교통 혼잡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교통 및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군관리계획(주차장) 결정(변경)을 하고자 함
B	상내리 공영주차장	• 주차장 신설 - 위치: 해남읍 상내리 23-4번지 일원 - 면적: 3,459㎡	• 군정사거리 및 매일시장 주변 주차 공간 확보로 방문객들에게 주차편의 제공 및 상가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군관리계획(주차장) 결정(변경)을 하고자 함

2. 주민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2021. 11. 18. ~ 2021. 12. 1.(14일)간  
나.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 해남군청 환경교통과 및 안전도시과  
다. 관계도서: 개제사실(열람장소에 비치)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청 환경교통과(☎061-530-5645) 및 안전도시과(☎061-530-54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화봉, 정운봉, 동선영) & 남이성, 트레킹산행, 영주체육관(03:30), 동아병원(03:35, 롯데백점(03:40, 광주역(03:45, 문예후문(03:55, 비엔누주차(04:00 \* 다음카페 광주kisan악회 ☎ 010 7794 6920